

음악교육동향*

2017 콜로키움 & 워크숍

박은승(학장초등학교)

2017년 대한민국의 화두는 ‘소통’이 아닐까 한다. 부산교육대학교 음악교육과에서 주관한 2017년 5월 13일 열렸던 콜로키움과 워크숍은 ‘소통하는’ 한국음악교육 학회를 보여준 아주 잘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참여한 많은 이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제시하였다.

이번 2017 콜로키움에서는 “음악과 새 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수업방안 탐색”이라는 주제로 연구자 세명의 주제 발표와 그에 따른 논평 및 국악 수업을 위한 워크숍과 교육학자와 함께하는 종합 논의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무엇보다도 음악교육과 학부생, 대학원생, 현직 교사, 여러 연구자들에 이르기까지 전국에서 모인 다양한 참가자들이 음악 교육관 1층 마루홀을 가득 채웠기에 음악교육에 대한 열의를 느낄 수 있었던 활발한 콜로키움이었다. 또한 2명의 연구자 발표 후 기존의 콜로키움과 달리 ‘부산교대부설초 과랑새 중창부’의 연주로 음악이 주는 기쁨을 짧은 시간에 느끼면서 다시금 음악 교육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포인트를 주었다고 할 수 있다. 가장 신선하고 좋았던 점은 교육과정과 교육공학 전공의 두 분과 함께했던 종합 논의로, 음악교육안에서의 논의를 확장하여 교육과정 속에서의 음악교육 및 교육공학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다.

콜로키움에서 발표된 3분의 연구를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 발표를 맡은 양종모 박사는 ‘음악과 교육과정의 비음악적 내용 확장에 대한 논의’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였다. 연구자는 1차 교육과정에서부터 2015 교육과정까지의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음악 개념이 축소된 것을 확인하고, 축소된 음악 개념의 자리를 채우고 있는 비음악적 내용을 분석 기준에 따라 그 구조와 특성을 살펴보았다. 교육과정을 가창, 기악, 창작, 감상, 생활화 영역으로 나누어 각 영역에서 제시된 비음악적 내용을 구별하고 각 영역에서 교육과정기에 따라 변화하는

* 서평 또는 논문평, 콜로키움 및 학술대회 보고, 연구 동향 등을 소개함.

비음악적 내용을 분석하였다. 결론에서 연구자는 음악과에서 언어적 활동은 주된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밝히며, 비음악적 내용의 확장이 음악적 내용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어서 음악 교과에서 비음악적 내용의 확장으로 인한 음악의 본질적 혹은 내재적 활동과 개념 축소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관한 다섯가지 질문을 던지며 앞으로 더 많은 고민과 연구거리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 대한 토론자 김영연 박사는 음악이 주 내용, 비음악이 부 내용 또는 방법으로서 얼마나 적절히 배합되어지는 경계점을 제시해 주는 대안 제시와 논의가 필요함을 제안하였고, 음악교과에서의 비음악적 내용 확산에 대한 우려는 다수의 음악교육자들이 걱정하는 바로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야 함을 주장하였다. 토론자 윤관기 박사는 비음악적 활동으로 음악 개념을 지도하는 것은 어떻게 명명(命名)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제시하였고, 이번 연구가 서양음악쪽의 관점에서만 제시된 것에 아쉬움을 나타내며 국악의 비음악적 내용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정미영 박사는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 따른 국악감상 지도내용 고찰’이라는 주제로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적용한 연구 사례를 발표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지향하는 학습 경험을 학생들에게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과 교육과정 성취기준과 평가준거 성취기준을 참고하여 수업을 계획하고 전개하는 것이 필요함을 이야기하며, 그에 따른 구체적인 악곡을 중심으로 국악 감상 지도 내용을 구성하였다. 성취기준의 내용인 고등학교 수준의 음악 요소와 개념, 다양한 종류의 음악, 음악의 역사·문화적 배경으로 구분하여 국악 감상 지도 내용을 구성하고, 앞으로 다각적인 국악 감상교육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하였다. 토론자 경상북도 의성교육지원청 김수철 장학사는 이 연구가 교육과정의 철저한 분석을 통한 내용선정에서부터 지도내용, 그리고 성취기준 및 핵심역량 연계까지 고등학교 수준의 국악감상 지도내용에 대한 선도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있음을 밝혔다. 토론자 유선미 박사는 연구에서 학습내용의 학년군간 연계성 및 위계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고등학교 중심’이라는 한계를 두지 말고, 초, 중, 고에 적용할 수 있는 단계별 예를 제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 발표 주제는 박진홍 박사의 ‘교과 역량 중심 음악 수업 재구성 방안’으로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3, 4학년군 음악의 교수·학습 과정안의 사례를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교육과정에서 개정의 중점으로 제시하고 있는 음악 교과 역량, 예술 영역 및 교과와의 연계를 통한 창의·융합 수업 구성, 음악의 실생활 활용 가능성, 국악의 생활화, 과정중심 평가,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 등의 내용을 가급적 모두 반영하고자 노력했음을 알 수 있는 연구였다. 연

구자는 2015 음악과 교육과정이 현장에 빠르게 정착하여 효율적인 수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정 중점 사항을 반영한 다양한 예시가 개발되어 현장에 제공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토론자 임미경 박사는 교육과정 강조 내용으로 정리한 5가지에 2개의 교육과정 내용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분리하여 진술할 필요성을 지적하고, 그 중 국악의 생활화 강조는 정확한 요목이 아니므로 국악 용어 중심의 음악 요소 및 개념 제시를 특징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제안을 하였다. 또한 감상과 생활화 영역의 교수·학습 과정안 틀이 함께 제시되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표현하였다. 토론자 최은아 박사는 새롭게 개발된 교육과정이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적용의 주체인 교사들의 실천이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 2015 교육과정의 연차적 적용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연구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말하며 이후로도 현장 적용을 위한 방법적 실재에 대해 보다 활발한 연구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이번 콜로키움에서는 다양한 기획으로 2015 음악과 새 교육과정에 적용할 수업 방안들에 대한 여러 각도에서의 탐색이 다루어졌고, 이어진 워크숍에서는 쉽고 재미있는 국악 수업을 위한 다양하고 재미있는 사례들을 공유할 수 있었다. 발표자와 토론자뿐만 아니라 콜로키움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질문과 토론을 통해 의견을 나누고 더 나은 음악교육의 방향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하였다. 특히 종합 논의 시간에 교육과정 및 교육공학 전문가와 함께한 토론은 정해진 시간을 넘기면서까지 열띤 토론이 이어졌는데, 이를 보면서 다른 학문 영역과 소통하며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짜임새있는 기획으로 참석한 많은 이에게 음악교육에 대한 진지한 토론의 장을 열어준 정은경 박사님께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의 콜로키움과 워크숍을 통해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공유하고 음악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많아지기를 바란다.